



정읍시의회, '정읍시 조례 정비연구회' 간담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조례 정비연구회"가 지난 2월 15일 등록하여 3월 3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의 출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을 논의하였다. 정읍시 조례 정비연구회는 이만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황혜숙,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의원이 참여하며, 3월부터 10월까지 우수한 자치법규 입법 사례 연구 등을 통해 현행 정읍시에 시행 중인 모든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분석 검토하고, 특히 정읍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와 규칙에 대해 보완점을 도출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만재 대표위원은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특히 시민 생활에 불합리한 조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민생중심의 입법 활동 및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뇌졸중 환자 AI필기 보조 시스템 개발

전북대 정지용 박사, 2023 세종과학 펠로우십 선정

전북대학교 정지용 박사(바이오메디칼공학부·지도교수 김정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젊은 과학자 육성을 위한 개인 기초연구사업 중 하나인 2023 세종과학 펠로우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젊은 과학자가 한국의 핵심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연과학과 생명과학, 의학약 공학, ICT·융합 등 5개 분야에서 150과제만 선정됐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국내 펠로우십 중 최고 수준인 연간 1억 원 이내(연구책임자 인건비 최대 6천500만 원)의 연구비를 최대 5년 간 지원받는다. 이에 따르면 정지용 박사는 지도교수인 김정자 교수

의 지도를 받아 해당 실험실에서 다년 간 중대형 연구 과제들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리서치 펠로우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였다. 이번 세종과학펠로우십 선정을 통해 정 박사는 '뇌졸중 환자의 필기 향상을 위한 딥러닝 기반 필기 보조/교정/훈련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신체적 특성이 반영된 필기 보조 시스템으로, 뇌졸중 환자의 필기 패턴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필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기반 맞춤형 웹 콘텐츠 개발을 계획한다. 김정자 지도교수는 "정 박사의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보조공학 기술이라며 '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장애인, 노인 뇌졸중 환자의 필기 시 의사소통 능력을 보완해 향후 개인 맞춤형 웰스케이 분야에 활용될 신기술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삼삼데이 특식 2천명 분 3000원 판매

전북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3월 3일 '삼삼데이'를 맞아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진수원관 의대식당, 후생관식당 등에 '삼삼데이 특식' 2천명 분을 마련, 당일 식권을 3천 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진수원관을 찾아 삼삼데이 특식을 함께 하며 이목을 끌었다. 양 총장은 "구성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축산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에 함께해 기쁘다"며 "구성원들이 대학발전에 대한 제안이나 개선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시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직무 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직무강화에 나서며, 지난 3일 전(全) 부서 민원처리 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담 강사를 초빙해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기한있는 법정 민원의 접수와 처리 절차 및 전산처리 과정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현재 남원시는 민원실에 지난 2월부터 민원인이 한 곳에서 인·허가 민원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3개의 창구에 인·허가 담당자를 집중 배치해 운영한다. 그동안 하나의 인·허가 민원 상담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해 나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노인회 무주군지회, 제50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는 3일 대의원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노인회 무주군지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2022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을 처리했으며, 노인회 조직 강화의 회원배가 운동, 노인 지도자 교육,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무주읍 조만길 무풍면 강세현 실천면 박희승, 최인규 회원 등 모두 8명의 회원이 지회의 발전과 경로당 운영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지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광부 지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주군지회 운영에 헌신적 봉사를 해 오신 대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구)와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전영기), 고창농협은 지난 2일 고창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관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의 홍보 캠페인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퍼포먼스와 홍보전단지 배부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깨끗한 표가 농협 발전의 초석으로 고창군 지역농협 조합원 모두가 공명선거의 실천과 감시자가 되어주시길 당부했다. 이문구 지부장은 홍보 캠페인 행사에서 "전국 동시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원 모두가 감시자 역할과 함께 투표일 마지막까지 후보자들 모두가 정책선거운동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경성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무주군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오이름)와 전북완전무장지역 후원회(회장 송원호)는 무주군(군수 황인홍)에 위기가정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위생용품 '온실키트'를 지난 3일 전달했다. 전달식은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김영림 드림스타프 팀장, 오이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굿네이버스 전북완전무장지역후원회는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마련해 올해에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과 함께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온실키트'를 제작했다. 무주군 내 위기가정 여성 청소년이 성인 여성이 될 때까지 매년 장기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달식으로 양 기관은 무주군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 위기가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이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위생용품 구매에 대한 걱정 없이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하고 송원호 굿네이버스 전북완전무장지역후원회장은 "지역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와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희망찬 무주군을 위해 지역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지역후원회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굿네이버스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반 회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굿네이버스 사업에 대한 후원 참여, 홍보, 자문 등의 굿네이버스 고유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좋은 이웃 지역 네트워크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임인)는 지난 3일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김제전통시장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을 찾은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를 위한 '선거비 OUT', '상도비 OUT', '부정보도 OUT'을 거듭 강조하며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전일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임인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유권자인 조합원의 깨끗한 한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완산소방서, 비화재보 심각대상 소방안전컨설팅

전주완산소방서는 지난 3일 소방시설 오작동이 잦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화재보 점검을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작년(2022년) 10회 이상 발생한 비화재보 심각대상을 선정해 잦은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소모를 해소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전담반을 운영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관리상태 확인 비화재보 발생 잦은 장소 집중 점검, 회로당 감지기 적정 개수 결선 여부 등 확인 결과 발생 장소 방수 조치 여부 확인 장소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 설치 여부 점검' 등이다. /완은경 기자



완산구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추진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23년 상반기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을 8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4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문화전도사 선정기관인 지역이동센터와 외국문화전도사 22명과 함께 3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은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의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완산구는 결혼이주여성 11명과 지역이동센터를 1:1 매칭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근무자인 지역이동센터에 파견되어 자국어인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문화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조아록 기자



농협 익산시지부·시청지점,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익산시와 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휴카드 기금 1억6천393만원을 전달했다. 3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이상우 지부장과 시청지점 이승배 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제휴카드 기금은 익산시와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시청지점이 협약을 맺고 법인카드, 공무원복자카드, 보조카드 사용금액의 0.1%~1% 상당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포인트로 적립된 기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1억1,963만원, 공무원 복자카드 2,310만원, 보조카드 2,857만원 등 총 1억6,393만 원이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휴카드 기금 발생 누적액은 14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상우 지부장은 "익산시와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을 지역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됨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도 지역사회 상생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제휴카드 적립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금은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시금과 취급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를 지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익산시 시금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익산=이재춘기자